토론

「글로벌 OTT 플랫폼의 자본력과 K-드라마의 형질 전환」에 대한 토론문

문선영 ▌한국공학대

윤석진 선생님의 발표문은 글로벌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의 자본력이 K-드라마의 제작 환경과 미학, 작가 의식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류가 K-콘텐츠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K-드라마의 세계적 성공은 넷플릭스의 자본과 결합이 주요한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 이면에서 드라마는 특정 장르 편향, 상업적 스토리텔링 강화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이 추구하는 전략을 마주하며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발표문은 한국 드라마가 글로벌 시장에 적합한 장르 코드와 흥행 전략 속에서 소비되거나 희석되는 양상을 돌아보고,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OTT 시대인 현재, 경제적 자본주의와 문화적 민주주의의 긴장 관계 속에서 넷플릭스와 K-드라마의 새로운 관계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발표문은 연구자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토론문은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의견을 여쭙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 청소년 성범죄, 학교 폭력, 좀비 등 과감한 소재와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장면 연출은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지배적이었을까요? 2016년 넷플릭스 이전 웹드라마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웹드라마에서 지상파에서 시도하지 않은 소재나 장르 시도, 과감한 연출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는 지상파의 청소년 드라마의 한계점을 넘어섰고, 한국 공포물의 스타일도 전환기를 맞이하던 때였습니다. 이는 한국 드라마 수용자들의 드라마를 통한 욕망이 달라지는 시기이며, 드라마를 수용하는 방법이 전환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넷플릭스의 영향력은 얼마나 지배적이었을까요? 선생님의 의견을 좀 더 듣고 싶습니다.

2. 발표문은 넷플릭스 이후 한국 드라마의 사회문화적 의제 기능이 약화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글로리>는 학교폭력 담론을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구조적 제도나 문제 해결 담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은 비판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가적 담론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글로벌 플랫폼, SNS, 팬덤 커뮤니티 등 다층적 네크워크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의제 설정 기능은 분산된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드라마의 사회문화적 의제의 약화가 아니라 공론장의 구조의 변화일 가능성은 없을런지요.

3. 발표문은 넷플릭스 이후 작가 의식의 상업화, 넷플릭스의 전략에 수긍하는 흥행 성공을 위한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작가 의식의 퇴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편향적 장르 기획, 알고리즘 기반 시스템, 글로벌 보편성 등 넷플릭스의 주요 기획은 분명 작가의 문제의식에 제한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 OTT 플랫폼의 확장으로 창작 주체로서 드라마 작가가 작

가 의식을 표출하는 방법의 변화로 볼 수는 없을런지요. 즉 작가가 장르나 플랫폼 관습 안에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작가 의식을 발현하는 것일 수는 없을까요? 방송 미디어에서 OTT 플랫폼의 확장되면서, 드라마의 작가 의식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오픈된 작품 한 개로 작가 의식의 상업화라는 결과를 말할 수 있을런지요. <폭삭 속았수다>의 경우, 그 간의 작가가 추구하는 바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 드라마의 스펙터클, 시대를 넘나드는 스토리 등 제작 주체나 플랫폼 체제 이외의 다른 원인들이 작동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넷플릭스의 전략에 의해 드라마 작가가 작가 의식을 양보했다는 이유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 현재 글로벌 OTT 플랫폼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자본을 견제하면서도 드라마 창작의 자율성, 예술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적, 제도적 장치는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K-드라마가 넷플릭스 또는 그 외 OTT 플랫폼과 어떤 관계 설정을 통해 의미 있는 창작 및 문화예술로서의 속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에 대해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